

“제주 노인·어린이 교통안전도 최악”

교통안전공단 전국 9개 도 교통약자 실태 조사 인구 대비 보행자 사고·고령자 등 안전도 꼴찌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복지 수준은 비교적 양호

항공기, 시내버스, 여객선, 버스 정류소 등 교통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9개 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통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종합만족도는 60.3점(100점 만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만족도 1위는

70.9점을 얻는 경기 지역으로, 제주보다 10점 이상 앞섰다.

이 조사는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등 두 집단으로 나눠 실시됐는데 제주는 두 집단에서 모두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교통약자 59.5점, 비교통약자 61.3점으로 교통약자가 더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부가 각 지역의 저상버스 보

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약자 사고율,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 등 10개 지표를 조사한 교통복지수준 평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제주의 교통복지 수준은 70.70점으로 경기(86.20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높았다.

제주는 10개 지표 중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 파우를 장착한 차량) 이용률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은 대당 3934건으로 전국 9개 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높은 이용률에 비해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떨어져 보급률 평가에서 5순위로 처졌다.

반면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휠체어가 오르내리기 편리한 버

스) 보급률은 22.6%로 전국 9개 도 중 2번째로 높아 비교적 양호했다.

이번 교통복지수준 평가에서 가장 큰 과제를 도출한 분야는 안전도다.

인구(만명) 대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를 토대로 평가한 보행자 안전도(지표 값이 낮을수록 안전)에서 제주는 14.9점으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고령자와 어린이로 대상을 좁힌 안전도 평가에서도 제주는 전국에서 2번째(64.9점)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주는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이동편의 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은 평균값보다 높았지만 보행자 안전도는 평균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KEI 검토의견 국토부에 가감없이 주문해야”

제2공항 반대단체 성명

제주제2공항행거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주민수용성 우선하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을 묵살한 환경부의 형식적인 보완 통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KEI의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제주는 14.9점으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고령자와 어린이로 대상을 좁힌 안전도 평가에서도 제주는 전국에서 2번째(64.9점)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주는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이동편의 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은 평균값보다 높았지만 보행자 안전도는 평균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환경부는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철저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세종시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며 단식에 돌입한 제주청년 노민규씨는 단식 농성 17일을 맞은 3일 두통·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심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박찬식 제주제2공항행거지비상도민회 상환실장이 공론화 특위 구성,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새내기 소방관 55명 “이젠 현장으로...”

제3기 소방사관 졸업식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 소방교육대에서 제3기 신입 소방사관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졸업한 소방관은 모두 55명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6주간 ‘현장에 강한 능력 있는 소방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총 600시간

동안 화재·구조·구급 훈련을 받았다.

정병도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다음속에 소방관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119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밝은 제주 만들어요” 경찰관 손전등 비추는 이색 조형물 ‘화제물이’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벽면에 ‘밝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 이색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조형물은 가로 15m, 세로 4.5m 크기로 제주도와 경찰이 공동 무 공유를 통해 제주 무사증 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총 18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드리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혔다. 손전등은 밤에 실제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경찰청 청사 현관에도 비슷한 형태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가로 3m, 세로 1m 크기로 제작된 이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은 제주경찰 포퓰러가 손전등으로 ‘제주의 안전을 밝게 조명합니다’라는 문구를 비추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 조형물은 제주도 옥외광고대상전에서 동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밝은 제주 만들기 사업은 제주도의 어두운 밤거리가 높은 범죄율과 낮은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561억원을 들여 도내 곳곳에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를 대거 확충한다. 이상민기자



인기 만점 메이크업 강의 2일 제주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19 평생학습대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메이크업 강의를 듣고 있다. 이상민기자

“확정 판결 나도 모르쇠” 문대림 JDC 이사장 피소

제주녹색당 진경표 공동위원장은 지난 1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등 JDC 관계자 4명을 ‘권리행사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공동위원장은 앞서 2015년 JDC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것에 대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 올해 대법원으로부터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예래단지 토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땅을 돌려받는 주민이 됐다.

진 공동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JDC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은범기자

흥기 위협 폭행 40대 집중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45)를 향해 가위를 들이대는 등 위협을 가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1만2000여명

제주해경 무사증입국자 불법 도외 이탈 집중단속 도내 항·포구 집중... 올해 밀입국사범 18명 검거

제주해경이 제주 해상을 통한 무사증 불법 도외 이탈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지난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두달 간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인 한해 평균 약 50만명에 달하고, 불법 체류자는 1만2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외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활동반을 편성해 도내 모든 항구와 포구 106곳(무역항 2, 연안항 5, 항·포구 99)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지난달 8일 도내 관계기관(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제주 무사증 이탈방지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 간 무사증 정보 공유 공조 수사 확대에 대한 업무 공유를 통해 제주 무사증 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총 18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알아주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팀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품음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정비
 안전성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충

국유재산관리사업 | 평가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濟)州(州) 리모델링

辛(辛)一(一)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오하라베니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